

일본사 교과서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무역상인' 연구

이 병 로*

第一に、日本では1920年代から円仁をはじめとする入唐求法の僧侶たちを研究する過程で新羅商人を研究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後1990年代に入り、日本列島という地域を越えて韓中日の三国間の交流を担当する僧侶と商人などを再照明する過程のなかでこれらの貿易商人に対する論文がまた出るようになった。一方、韓国では張保臯という人物を中心として新羅商人に対する研究が活発に行われるようになる。特に1990年代後半に(財)海上王張保臯記念事業会が設立され、張保臯をはじめとする新羅商人に対する研究はさらに増え続けているのである。

第二に、日本で出版された中・高校の日本史教科書を考察してみたが、出版社によって韓半島から渡ってきた貿易商人の記事を入れたり排除したりしている。しかし、山川出版社と実教出版社、三省堂出版社などの高校教科書は新羅商人と高麗商人を明記している。これは最近の日本史学会の動向を正確に反映していることとして非常に望ましいことであると思われる。

第三に、中学の自由社と高校の明成社は宋商人だけを明記し、韓半島の新羅と高麗商人に対する記事が見られない。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に心酔している著者によって書かれている自由社と高校の明成社の教科書では無意識のなかで韓半島を日本より下位に置こうとする'日本優越主義'の表れ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新羅及び高麗貿易商人、唐及び宋貿易商人、日本史教科書の貿易商人(신라 및 고려무역상인, 당 및 송무역상인, 일본사교과서의 무역상인)

1. 머리말

최근 한일 양국의 관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예전에도 이런 위기는 몇 번 있었으나 지금처럼 장기적이고 심각한진

*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양국의 양식있는 사람조차 우려할 정도로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을 대신하여 들어선 자민당의 아베정권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강제 징용에 따른 배상 문제 등,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이전 정권과는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한·중의 역사적 연대에 대한 불안감, 일본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한 우경화 등이 맞물려 일본열도의 험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한 일본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본인의 역사왜곡으로 초래된 양국의 역사 인식 문제가 사태의 근본 원인이므로 일본인이 역사 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국 관계가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 인식 문제로 양국 간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우리는 일본인의 역사인식 문제에 좀 더 철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일본사 교과서에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릴 때 배운 일본사의 역사적 지식들이 머리 속에 고착화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일본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대해 분석하려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대응하여 동북아역사재단¹⁾이 설립되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사 교과서를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근 현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고대의 동아시아 무역상인이란 테마의 고찰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고등학교의 일본사 교과서에서 한반도나 중국의 무역상인, 즉 동아시아 무역상인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일 역사학계에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대해

1)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2005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식민지배의 왜곡 기사 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2013년 6월 9일에는 「2011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세 분석」이란 국제학술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최신 연구 동향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각 출판사별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출판사별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출판사의 편집 성향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떤 교과서가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에 바람직한 것이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를 모두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현재 7종이 발간되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는 전부 입수할 수 없어 이번에는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중학교 교과서 중 일본 우익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가 저자로 있는 자유사(自由社)의 일본사 교과서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므로 주에서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2. 한일 역사학계의 '동아시아 무역상인'에 대한 연구 동향

동아시아에 속한 한중일 삼국은 지정학적 영향으로 고대국가로 성립되기 이전인 원시시대부터 인적·물적 교류가 행해져 왔다. 특히 중국대륙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고대국가로 성장한 한반도의 삼국과 가야는 선진문물을 일본열도에 전파하여 고대 울릉국가인 나라(奈良)시대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교류에는 공적인 사신들과 함께 각국의 '무역상인'들도 참가하여 8세기까지는 주로 공무역이 주류를 이루었다. 신라는 7세기 말에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과 일시적으로 대립하였으나, 곧 당과 정치적 관계를 복원하여 공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나아가 통일신라는 8세기 이후 일본에도 대규모의 공적 사절단을 파견하여 일본인 관리들과 공무역을 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752년 김태렴의 방일이다.²⁾

2) 김태렴에 관한 논문의 대부분은 그의 경제적인 교역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라왕자 김태림은 752년에 70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에 건너왔다. 당시의 사절단 규모가 대략 300명 미만인 점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방일사절단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대규모 무역상인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상인들은 첫 도착지인 규슈의 다자이후(大宰府)를 비롯하여 나라시대의 수도인 헤조쿄(平城京)와 나니와(難波: 현재의 오사카) 등에서 일본의 관리들과 공무역을 행사하였다.³⁾

그러나 8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신라는 일본과 같이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고, 나아가 일본과 외교적 분쟁마저 발생하게 되자 779년 이후 더 이상 공적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따라서 8세기 말부터 공무역은 자연스럽게 사무역으로 전환되었고, 사무역의 담당자인 신라상인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신라상인의 뒤를 이어 9세기 중엽에는 당상인이 일본열도를 왕래함으로써 본격적인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의 시대가 전개된다. 다만 발해는 여전히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여 공적사절단을 통한 공무역을 전개하였다. 10세기에 들어서면 당·발해·신라가 차례로 멸망을 당하고, 고려와 송이 건국되면서 이들 나라의 상인들이 다시 일본열도를 왕래하며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9세기에 한중일 삼국

박남수(2009) 「752년 김태림의 대일교역과 '買新羅物解'의 향약」 『한국고대사 연구』55, 이병로·김용일(2006) 「752년 신라사 김태림의 방일 목적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34, 田村圓澄(1999) 『古代日本の國家と佛教』 吉川弘文館, 윤선태(1997)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쓰케[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24, 池田溫(2002) 「天寶後期の唐・羅・日關係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文化と交流』 吉川弘文館, 李成市(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青木社, 東野治之(1977)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濱田耕策(1983) 「中代・下代の内政と對日本外交 - 外交形式と交易をめぐって -」 『學習院史學』21.

위와 같이 대부분 경제적 교역활동의 견해와는 달리 김태림의 방일을 일본 내정의 추이와 연결시켜 정치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강은영(2010) 「8세기 중후반 일본의 내情과 對新羅關係의 추이 - 752년 金泰廉 使節團의 來日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 『일본역사연구』31.

3)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政敏)는 다자이후(大宰府)의 관리들이 신라상인들과 사무역을 행하면서 상권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779년에 신라로부터 공적사절이 도절되었으며, 9세기에 사적인 신라상인들의 무역행위가 성행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石井政敏(1987) 「八・九世紀の日羅關係」 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에 걸쳐 대규모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약한 장보고와 같은 무역상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신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들이 일본열도에 건너와 규슈(九州) 지역에 거주하며 교역활동을 전개하여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대한 재조명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장보고재단이 설립되면서 이들 해상무역상인들의 교역활동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⁴⁾ 따라서 2000년 이후 장보고⁵⁾를 대표로 하는 신라상인은 물론이거니와 당상인, 발해상인 등 이들 해상무역상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다.

한편 1920년대에 이미 해상활동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서도 이루어졌으나, 주로 엔닌(圓仁)이 기록한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장보고를 비롯한 신라상인과 당상인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 논문들은 식민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라를 일본보다 하위에 두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으며, 당연히 해상무역업자들의 역할이 왜곡내지는 축소된 경우가 많았다.⁶⁾ 1945년 일본의 패전 후에도 이러한 자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대 일본의 지배층이 한반도 국가들에 대해 '소중화사상'을 가

4) 장보고는 한중일 삼국의 고대 사료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므로 일찍부터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9년에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장보고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논문과 저서는 더욱 증가하였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0년 5월에 결성된 해상왕장보고연구회는 한중일 삼국에서 1999년까지 발표된 저서와 논문의 목록을 발간하였다. 해상왕장보고연구회(2001) 『7-10세기한중일교역연구문헌목록·자료집』,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또한 2002년부터 매년 시리즈로 장보고와 관련된 논문들을 모은 『대의문물교류연구』라는 성과물을 내고 있다.

5) 장보고의 출생에서 암살에 이르기까지를 상세하게 고찰한 대표적인 논문을 든다면, 일본에서는 가모 료코(浦生京子)(1979) 「新羅末期張保高の擡頭と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한국에서는 李永擇(1979) 「장보고와 해상세력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대학논문집』14를 들 수 있다.

6) 이미 1920년대부터 단편적인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今西龍(1927)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を讀みて」, 후에 今西龍(1980) 『新羅史研究』國書刊行會에 수록. 內藤雋輔(1928) 「新羅人の海上活動について」 『大谷學報』9, 후에 內藤雋輔(1980) 『朝鮮史研究』大學社에 수록.

지고 임했다는 학설을 발표하였다.⁷⁾

그러다가 일본에서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장학자들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당일간을 왕래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들, 나아가 일본의 많은 승려들이 신라상인과 당상인의 선편을 이용하여 당과 일본열도를 왕래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⁸⁾ 이들의 연구도 정치적 입장에 선 여전히 한반도를 하위에 두려는 일본측 선행연구를 어느 정도 답습하고 있지만, 패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들 무역상인들을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양국에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축적이 이뤄져 왔다. 한국에서는 장보고의 재조명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상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중시되어 한국의 교과서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본역사학계에서도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이들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일본사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활약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은 일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역시, 중학교⁹⁾와 고등학

7) 石母田正(1983) 『日本古代國家論』第1部、岩波書店、pp.316-322.

8) 田中史生(2012) 『國際交易と古代日本』吉川弘文館、山内晋次(2003)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9) 중학교의 우익성향으로 유명한 자유사의 일본사 교과서의 내용 중 '동아시아의 무역상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아가 기요모리(清盛)는 오와다(大輪田)항¹⁾을 정비하여 송의 상선을 불러들이는 등, 일송 무역에 힘을 쏟아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藤岡信勝 외 7명(2001) 『日本人の歴史教科書』自由社、p.67.

송의 상선을 초청하여 일송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린 기요모리를 부각시키고, 신라나 고려와의 무역에 대한 기술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지는 알 수 없으나, 한반도의 무역상인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같은 중학교 교과서인 도쿄 서적의 기사와 대비가 되기 때문이다.

교의 일본사 교과서 내용 중, 한반도와 관련된 기술이 일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신라와 당상인을 비롯한 고려와 송의 무역상인들이 이들 교과서에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가에 따라 현재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역사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한일역사쟁점 중의 하나인 고대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신라·당·고려·송상인)을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출판사별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일본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무역상인'에 대한 기사분석

일본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본사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면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출판사에서 일본사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8개의 일본사 교과서를 들 수 있다.¹⁰⁾ 그러나 실제로 각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본사 교과서는 몇몇 출판사에 의해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출판되는 모든 일본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 무역상인'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다이이치가쿠슈샤(第1學習社)의 교과서만 입수하질 못해 나머지 7개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살

도쿄서적에서는 기요모리의 기사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첨가되어 있다. "일본은 송과 고려와는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않았지만, 양국의 상인의 활동을 통하여 문물을 수입했습니다." 高橋進 외 32명(2001) 『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p.44.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와 송의 상인이 일본열도에 건너와 교역활동을 전개했다는 기술하고 있다. 지유샤와 비교되는 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쿄서적이 '고려상인'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최근의 연구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한반도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오히려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현재 검정을 거친 고등학교의 일본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야마카와(山川)출판사, 도쿄(東京)서적, 짓교(實教)출판, 산세이도(三省堂), 시미즈(清水)서원, 다이이치가쿠슈샤(第1學習社), 기리하라(桐原)서점, 메이세이샤(明成社) 등이다.

펴보기로 한다.

요즈음 일본사 교과서는 일본사 A와 B로 크게 나뉜다. A는 우선 2단위(주 2시간×35주)로 공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주로 근현대사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대에서 근세까지의 내용은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일본사 B는 4단위로 공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도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골고루 기술되어 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대부분 B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B형의 일본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B형의 일본사 교과서는 야마카와(山川) 출판사의 것으로서 채택률은 약 66.5%이다. 다음으로 짓교(実教) 출판이 약 12.5%를, 도쿄(東京) 서적이 약 10.6%를, 시미즈(清水) 서원이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출판사의 채택률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야마카와 출판사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¹¹⁾ 따라서 가장 채택률이 높은 야마카와 출판사의 일본사 교재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야마카와 출판사의 일본사 교재에는 ‘국제관계의 변화’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a-1 “8세기 말에 신라로부터의 사절은 중지되었으나 9세기 전반에는 신라의 상인이 무역을 위해 내항하게 되었다. 이윽고 9세기 후반에는 당상인이 빈번하게 내항하게 되고 조정에서는 그들과 무역의 시스템을 갖추어 서적이나 도자기 등의 공예품의 수입에 힘썼다. 이러한 배경으로 894년에 견당대사로 임명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는, 당은 이미 쇠퇴하고 있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적인 교섭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파견의 중지를 제안하였고, 결국 이 때 견당사는 파견되지 않고 끝났다.

907년 동아시아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당이 멸

11)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會編(2011.8)『教科書レポート』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會、p.33.

망하였다. 중국에서는 5대10국의 여러 왕조가 흥망하고 그 가운데 강남의 항주에 수도를 둔 오월국으로부터 일본에 상인이 내항하여 강남의 문화를 전하였다. 이윽고 중국은 송에 의해 통일되었으나 일본은 동아시아의 동란과 중국 중심의 외교관계(조공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송과 정식 국교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규슈의 하카다에 빈번하게 왕래한 송상인을 통하여 서적이나 도자기 등의 공예품, 약품 등이 수입되고, 대신에 금이나 수은·진주, 유황 등이 수출되었다. 일본인의 도항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천태산이나 오대산의 순례를 목적으로 하는 승려들에게는 허가가 내려졌기에 10세기의 초넌(齋然), 11세기 중반의 조진(成尋) 등의 승려와 같이 송상인의 선편을 이용하여 대륙에 건너가 송의 문물을 일본에 들여오는 자도 있었다.

중국 동북부에서는 나라시대 이후 일본과 친교가 있었던 발해가 10세기 전반에 거란(遼)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조선반도에서는 10세기 초에 고려가 일어나 이윽고 신라를 멸망시키고 반도를 통일하였다. 일본은 요나 고려와도 국교를 맺지 않았지만, 고려와의 사이에는 상인 등의 왕래가 있었다.¹²⁾

또한 다이랴노 기요모리에 대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a-2 헤이시(平氏)의 경제적 기반은 전성기에는 일본전국의 약 반에 해당하는 지교코쿠(地行國)¹³⁾과 500여개의 장원이며, 나아가 헤이씨가 기요모리 이래 힘을 쏟고 있던 일송무역도 있다. 11세기 후반 이후 일본과 고려·송과의 사이에 상선의 왕래가 활발하게 되고 12세기에 송이 북방의 여진인이 세운 금나라에게 압박을 받아 남송이 된 이

12) 笹山晴生 他13人(2013)『詳説日本史B』山川出版社、pp.71-72.

13) 지방의 관리권을 특정 귀족이나 대사찰·신사 등에 주고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이익의 대부분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지방의 관리의 임명권까지 가졌으며 헤이안 시대 후기에 급증하였다.

후는 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요모리는 셋츠(攝津)의 오와다노 토마리(大輪田泊 : 현재의 고베항)를 수축하여 세토(瀬戶)내해 항로의 안전을 도모하여 송상인이 기내(畿内 : 현재의 나라 오사카 교토 등의 고대 수도권 지역)에까지 초청하여 무역을 추진하였다. 이 기요모리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의 결과 송선이 가져온 많은 진기한 보물이나 송전·서적은 이후 일본의 문화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무역의 이윤은 헤이씨정권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¹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마카와 출판사의 일본사 교과서는 '국제관계의 변화'란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언급하고 있다. 이전에 출판된 일본사 교과서에는 주로 당상인과 송상인에 대한 언급밖에 없었으나, a-1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신라의 상인', 혹은 "고려와의 사이에는 상인 등의 왕래가 있었다."든가, a-2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일본과 고려 사이에 상선의 왕래가 활발했다'든가 하는 기사를 통해 신라와 고려상인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이전에 야마카와 출판사에서 발행된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지금과 같이 신라와 고려상인을 기술하지 않았다. 즉 동 출판사에서 2006년에 발행된 일본사 교과서에 의하면, "신라나 발해와의 교섭도 성행하여 8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국가사절보다 상인의 왕래가 많고, 무역이 중심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도 단지 '상인의 왕래'라고 하여 신라상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교과서의 69쪽에는 다이랴노 키요모리가 일송무역에 힘을 쏟았으며, '송의 상인'이 내항했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고려와의 교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¹⁵⁾ 이것을 통해서도 야마카와 출판사의 일본사 교재는 최근의 일본고대사 학계에서 새롭게 형성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대한 역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는 일본사 교과서의 대부

14) 笹山晴生 他13人(2013) 위의 책, p.92.

15) 石井進 他12人(2006) 『高校日本史』山川出版社、pp.37-38、p.69.

분이 야마카와 출판사의 것임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이 고대와 중세 시대에 한반도의 신라와 고려상인들이 일본열도를 왕래하면서 교역 활동을 전개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게 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고대와 중세에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과 교역을 받아들였다는 선입감이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짓교(實敎) 출판 발행의 일본사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세'와 '헤이씨정권'이란 항목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b-1 “9세기 말 당은 10년에 걸친 황소의 난으로 국내가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894년 거액의 비용을 들여 견당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스가하라노 미치자네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당은 907년에 멸망하고, 960년에 송(북송)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당이나 송상인의 내항은 점점 더 성행하게 되고 하카다(博多)를 거점으로 하여 귀중한 서적이나 도자기 등의 무역품이 반입되었다. 이것들은 당물이라 불려 귀족들에게 환영을 받고, 상인의 알선으로 당과 송에 유학하는 승려도 늘었다. 한편 신라로부터의 사자는 780년 이후 중지되었으나, 신라상인의 다자이후에의 내항은 그 후도 이어졌다. 그러나 신라도 내란이 잇달아 멸망하고, 대신 고려가 936년에 조선을 통일하였다.

발해로부터의 사자는 무역을 주로 하여 10세기 초까지 계속되고, 호쿠리쿠(北陸)·산인(山隱)의 항구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발해도 926년에 요(거란)에게 멸망당하였다.”¹⁶⁾

b-2 “(다이랴노) 키요모리(平清盛)는 일송무역에도 힘을 쏟아 다자이후에 일족·게닌(家人)을 파견함과 동시에 현지의 관리를 게닌으로 조직하여 송과의 무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셋츠국(攝津國)의 후쿠하라(福原 : 지금의 고베시)에 별장을 갖추고, 그 항구인 오와다(大輪田)항을 수리하여 세토(瀬戶)내해항로를 정비하고 송의 상인들을 초청하였다.”¹⁷⁾

16) 宮原武夫 他15人(2012) 『日本史B』 實敎出版、p.45.

17) 宮原武夫 他15人(2012) 앞의 책, p.56.

위의 b-1의 밑줄 친 기사를 보면 야마카와 출판사의 일본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신라상인'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780년부터 신라의 공적사절은 중지되었으나 신라상인이 다자이후에 빈번하게 방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이것은 야마카와 출판사의 8세기 말보다 구체적이며, '신라상인'이라는 역사적 용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b-2의 기사에서 고려상인의 용어를 볼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야마카와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고려와 송의 상인이 빈번하게 왕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짓쿄출판의 교과서에는 기요모리가 적극적으로 송과의 무역을 추진하였다는 기사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많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는 도쿄서적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아시아의 정세와 새로운 문화'와 '헤이씨의 정권'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c-1 당은 8세기 후반에 발생한 내란으로 국력이 쇠퇴해져 907년에 마침내 멸망하였다. 또한 나라시대부터 국교가 있었던 발해가 요(거란)에게, 조선반도의 신라가 고려에 잇달아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하여 10세기에는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문화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에서는 독자 문화가 자라게 되었다.

일본은 894년 건당사를 정지한 후, 중국을 재통일한 송이나 동아시아의 새로운 나라들과 국교를 열지 않았지만, 송의 민간무역선은 자주 북규슈에 내항하여 새로운 문물을 가져왔다.¹⁸⁾

c-2 기요모리(清盛)는 또한 송과 고려의 상선이 내항하기 쉽도록 세토내해의 항로의 정비와 항의 개축과 수리를 행하고, 민간무역의 확대에 노력하였다. 송과의 무역으로 도입된 송전과 서적·경전은 일본의 경제나 문화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¹⁹⁾

18) 尾藤正英 他7人(2012)『新選日本史B』東京書籍、p.52.

19) 尾藤正英 他7人(2012) 위의 책, p.61

위의 도교서적 일본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야마카와 출판사와 짓쿄 출판사와 달리 신라상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상인이란 용어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술상의 형평성을 갖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신라상인을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c-2에서 기요모리를 언급하며 고려의 상선이 내항하였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송과 고려상인'이란 표현은 아니지만 고려의 상선이 내항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려상인이 방일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 또한 c-2에서도 다른 교과서에서 모두 언급되고 있는 송상인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를 의도적으로 차별하거나 배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산세이도(三省堂) 출판사에서 나온 일본역사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아시아의 상인과 관련되는 기사는 d-1과 d-2이다.

d-1 "한편 당과 신라의 상인이 빈번히 내항하게 되었으므로, 조정은 점차 견당사 파견에 대한 의욕을 잃고 894년 견당대사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의 건의를 계기로 하여 견당사는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중략). "그러나 10세기 후반에 송이 건국되자, 상선이 빈번하게 내항하게 되어, 견직물과 도자기 등의 무역과 승려 등의 문화교류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수사나 견당사를 통해 행해지고 있던 국가간의 무역은, 하카타(博多)에 송의 상인이 거주하게 되는 등 민간을 통한 무역으로 크게 변화했다."²⁰⁾

d-2 "(다이랴노) 키요모리는 (그의 부친인) 타다모리(忠盛)와 마찬가지로 일송무역에도 힘을 쏟았다. 11세기 후반 이후에도 고려나 송(남송)과의 사이에서 활발한 민간무역이 행해지고 있었다. 기요모리는 그 실정을 살려 북방의 금에게 쫓겨남으로 옮겨온 송상인들을 초청하는데 힘을 썼다. 그래서 셋츠(攝津)국의 오와다(大輪田)항의 수북 등 세토(瀬戸)내해 항로의 안전을 꾀했다."²¹⁾

20) 青木美智男 他12人(2003) 『詳解日本史B』三省堂、pp.48-49.

21) 青木美智男 他12人(2003) 위의 책, p.70.

위의 d-1의 밑줄 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산세이도 출판사의 일본사 교과서 역시 '당과 신라의 상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들 무역상인들의 활약으로 건당사의 파견도 중지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신라나 당의 민간상인에 의한 무역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10세기 이후 하카타에 송의 상인이 거주하면서 민간무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첨가하고 있다.

짓교출판과 마찬가지로 d-2에서 기요모리가 일송무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송상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고려상인'이란 표현은 보이지 않지만 "고려나 송과의 사이에 활발한 민간무역을 행해졌다"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와의 민간교역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는 고려상인의 방일을 알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세이도 출판사는 비록 고려상인이라는 기사는 없지만, 송상인을 비롯하여 신라와 당상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야마카와 출판사나 짓교출판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무역상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세이도 출판사는 이전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가 『신일본사』를 집필한 적이 있으며, 당시 문부성의 검정 작업 시 수정을 거부하여 교과서 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다. 대부분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미즈(清水) 서원의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아시아의 정세'와 '헤이씨정권'이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e-1 10세기에 동아시아의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대륙에서는 당이 907년에 멸망하고 이욱고 송이 건국되었다. 또한 발해가 요(거란)에게 멸당을 당하고 조선반도의 신라도 멸망하고 고려가 대신 들어섰다.

당의 쇠퇴를 전해들은 일본의 조정은 사적인 내항선에 의해 당물 등을 입수할 수도 있어 위협을 무릅쓰고 건당사

의 파견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894년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의 건의로 파견을 정지하였다.²²⁾

e-2 다이랴노 키요모리(平清盛)를 중심으로 한 헤이씨정권은 다수의 장원과 지교코쿠(知行國)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것 외에, 셋츠의 오오와다노 토마리(지금의 고베항 일부)를 수축하여 일송무역에 의한 사익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²³⁾

시미즈 서원의 일본사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일본사 교과서와 같이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는 매우 간결하게 기술하고 신라나 고려의 상인은 물론이거니와 당상인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사적인 내항선'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기요모리의 헤이씨정권의 항목에서도 일송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한반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집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음으로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일본교과서를 살펴보면 '대외관계의 변화와 국풍문화'와 '헤이씨정권'이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볼 수 있다.

f-1 907년 당이 멸망하고 5대10국의 흥망을 거쳐 960년에 송이 성립하였다. 일본은 송과는 정식 국교를 열지 않고 상선이 송에 도항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그러나 송의 상선은 자주 북규슈에 내항하여 사무역을 행하였고, 승려가 구법을 위해 입송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한편 자주 일본에 사절을 보내고 있던 발해는 926년 요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조선반도에서는 10세기 초에 건국한 고려가 신라를 멸망시키고 반도를 통일했지만, 일본은 고려의 국교를 갖지 않았다.²⁴⁾

f-2 한편 헤이씨는 다다모리(忠盛) 이후 일송무역을 적극적

22) 加藤友康 他9人(2012) 『日本史B』清水書院、p.50.

23) 加藤友康 他9人(2012) 위의 책, p.62.

24) 渡部昇一 他22人(2014) 『最新日本史』明成社、p.59.

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은 건당사 중지 후 대륙과의 국교·통상을 금지하고 있던 종래의 대외정책과 비교하면 큰 변화였다. 기요모리(清盛)는 셋즈(攝津)의 오오와다노 토마리(大輪田泊 : 현재 고베항의 일부)를 수축하고 아키(安藝 : 히로시마현 서반부)의 온도(音戸)의 세토(瀬戸 현재의 히로시마만의 동쪽에 있는 해협)을 개방함과 동시에 세토 내해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무역에 힘을 쏟았다. 수입된 송전은 일본의 통화로 유통되고 무역의 이익은 헤이씨정권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²⁵⁾

메이세이샤의 일본사 교과서는 시미즈 서원의 내용보다 길지만, 한반도의 무역상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시미즈 서원이 중국의 상인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반면, 메이세이샤의 내용은 대부분 송나라와의 무역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송상인이 일본을 왕래하며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기사밖에 없다. 메이세이샤의 일본사 교과서는 중학교 일본사 교과서를 출판한 지유샤와 마찬가지로 우익성향의 저자가 집필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신라상인이나 고려상인들이 일본열도에 건너와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근처에는 한반도를 하위에 두려는 ‘우월의식’이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로 거의 채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기리하라(桐原) 서점의 것을 살펴보면 신라와 당의 무역과 사정에 대해 거의 두 페이지를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변동과 건당사의 폐지’, 그리고 ‘헤이씨정권과 일송 무역’의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g-1 당의 쇠퇴가 진행되는 가운데 엔닌(圓仁) 등을 태운 건당사가 838년에 출발하여 겨우 중국에 도착하였다. 두 번에 걸친 실패를 거쳐 승선 거부자를 내면서도 고토(五島) 열도에서 양주 방면을 향해 갔던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도향한 최후의 건당사가 되었다.

25) 渡部昇一 他22人(2014) 위의 책, p.72.

일본은 신라에 사절을 보내어 견당사가 만일 조난한 경우의 구조를 의뢰하였다. 신라는 대국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였다. 또한 신라인 중에는 중국산동반도 등을 거점으로 하여 강남 방면에 걸쳐 교역활동을 널리 전개하는 집단도 나타나, 일본의 견당사는 이들로부터 많은 원조도 받았다. 대규모 사절단을 빈번하게 보내오고 있는 발해에 대해서는 점차 제한이 가해져 갔다. 교역상이나 송영의례상의 부담이 증가해 감에 따라 필요한 교역도 에미시나 다른 집단과의 교역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894년 견당대사로 임명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는 견당사의 폐지를 건의하였고 이듬해 이것을 결정하였다. 당의 현저한 피폐에 더해 신라나 중국의 사적인 상선 등이 규슈 북부를 왕래하고 자유자재로 문물을 운반하게 되어 갔다. 한편 신라 국내에서는 전란과 곤궁의 위기를 맞이하여 본국을 탈출하여 쓰시마(對馬島) 등에 내착하는 신라인 집단이 나타나 일본측의 공포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서북 규슈의 세력과 신라인들이 독자의 교역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여 도저히 지금과 같은 견당사 파견이 행해질 환경이 아니었다. 게다가 당 문명의 수용과 재생에 고집하는 문인귀족들은 외국사절을 접대하는 장인 고로관(鴻臚館)에서 주고받는 발해사와의 예의 작법이나 한시문의 교환에 작지만 귀중한 이국과의 교류의 의의를 찾고 있었다.

당은 907년에 멸망하고 5대를 거쳐 이욱고 송이 건국했다(960년). 발해사가 일본에 건너온 것은 10세기 초에 끝이 나고, 926년에 요에 의해 발해는 멸망을 당하였다. 이욱고 신라도 935년 고려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당의 멸망은 동아시아에 있어 국제질서의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일본도 중앙집권적인 율령국가의 해체기에 돌입하였다. 10세기 말에는 아마미(庵美)제도의 집단이 북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고려에 관한 불온한 소문도 들려 중앙귀족은 당황하였다. 그 후 1019년 도이(刀伊 : 연해주의 여진족)에 의한 쓰시마·이키(壹岐), 그리고 규슈 북부 연안에 대한 격렬한 침공에서는 다자이 곤노소치(大宰權帥)의 후지와라노 다카이에(藤原隆家)가 지역 무사를 지휘하

여 외적을 격퇴함으로써 규슈 북부에서 무사단 발생의 단서를 낳게 하여 다음 시대의 도래를 예감케 하였다.²⁶⁾

g-2 겐지(源氏)를 중앙에서 몰아낸 기요모리는 1167년에 무사로서는 처음으로 태정대신이 되어 딸인 도쿠고(徳子)를 다카쿠라(高倉) 천황의 중궁으로 보내어 안도쿠(安德) 천황의 외조부의 지위를 얻어 정권을 장악하였다. 기요모리와 그 일족은 교토의 로쿠하라(六波羅)에 저택을 가졌기 때문에 로쿠하라정권이라고도 한다. 전성시대의 헤이씨 일족의 소령은 500여개소, 지행국(地行國)도 30여국에 달했다고 한다. 귀족의 장원에는 영가의 허락을 얻어 그곳에 무사들을 지토로서 배치하고 또한 셋츠국 오와다노 토마리(후의 효고항, 현재 고베항 서부)를 수축하고 일송무역에 의한 부를 손에 넣었다. 헤이씨정권은 무사가 정권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이었으나 무사 독자의 정치기구를 만들지 않고 태정관 기구의 관직을 헤이씨 일족이 차지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것이다.²⁷⁾

g-1과 같이 기리하라 서점의 일본사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와 달리 8-9세기의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2-3배나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가령 견당사가 출발하면 신라에 표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라에 사절을 파견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든가, 여기에 신라가 '대국의식'을 가지고 대응하였다든가, 당시 당에서 활약하고 있던 재당신라인의 활약을 열거하는 등 한반도의 해상무역상인들의 기사를 가장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도 고대 일본지배층의 신라에 대한 우월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시 동아시아의 각국이 민간교류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g-2에서 기요모리를 언급하며 일송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고려상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다른 어느 교과서보다 신라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교과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 일본사교재는 신라나 당상인

26) 宮地正人 他10人(2012) 『日本史B』 桐原書店、pp.82-83.

27) 宮地正人 他10人(2012) 위의 책, pp.102-103.

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 지유사의 교재는 송상인에 대한 기술이 있지만, 도쿄서적 출판의 교과서는 예외적으로 송과 고려의 상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고 하겠다. 지유사 출판사의 교재가 우익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상인의 활약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개 당상인과 송상인의 활약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 발간된 일본사 교과서에는 신라와 고려의 상인들이 활약하는 모습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마카와 출판사를 비롯하여 짓교출판, 산세이도 출판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교과서에 신라와 고려의 상인들이 일본열도를 왕래하면서 무역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기술한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 최근의 일본역사학계의 동향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직도 임나일본부문제를 비롯하여 고대 이전의 한일관계사의 왜곡된 부분도 남아 있지만 나라시대 이후 활약했던 신라상인과 고려상인의 모습이 일본사 교과서에 바르게 기술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젊은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인 역사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다소간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는 시미즈서원과 메이세이샤 등의 일본사 교과서가 아직도 중국일변도의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과서가 최신의 일본 역사학계의 동향을 싣고 있으므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대세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맺은말

이상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대해 한일 간의 연구동향과 이것을 일본사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나아가 일본사 교과서의 분석결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에서는 1920년대부터 엔닌을 비롯한 입당구법 승려들의 왕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라상인을 고찰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²⁸⁾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일본열도란 지역을 뛰어 넘어 한중일 삼국간의 교류를 담당하는 승려와 상인 등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이들 무역상인에 대한 연구논문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²⁹⁾ 한편 한국에서는 장보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신라상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후반에 (재)해상왕장보고기념회가 설립된 후, 장보고를 비롯한 이들 신라상인에 대한 연구업적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많은 저서와 논문이 출판되었다.

둘째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에 관한 기사가 일본사 교과서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전에는 한반도의 신라상인이나 고려상인에 대한 기사가 전무했으나 최근 일본역사학계의 새로운 연구동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한일관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채택률이 높은 야마카와와 짓쿄, 산세이도 등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교과서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운 젊은 학생들이 장래 일본을 짊어지고 나갈 세대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근대 부분의 역사왜곡이 많은 편이라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편견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동아시아 무역상인’이란 항목과 같이 긍정적인 평가가 교과서에 정착된다면 한반도에 대한 편견도 조금씩이나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이 이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중학교의 지유사와 고등학교 메이세이사의 출판사에서 발간된 일본사 교과서는 여전히 당상인과 송상인만을 명기하고 한반도의

28) 이미 1920년대부터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今西龍(1927)『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を讀みて』 후에 今西龍(1980)『新羅史研究』國書刊行會에 수록. 內藤雋輔(1928)『新羅人の海上活動について』『大谷學報』9. 후에 內藤雋輔(1980)『朝鮮史研究』大學社에 수록.

29) 藤田明郎(1992)『日本中世史における近年の東アジア海域研究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會報』106. 荒野泰典・石井政敏・村井章介編(1992)『アジアの中の日本史』시리즈 6권, 東京大學出版會. 각 권의 제목은 I 『アジアと日本』, II 『外交と戦争』, III 『海上の道』, IV 『地域と民族』, V 『自意識と相互關係』, VI 『文化と技術』이다.

무역상인은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위의 두 출판사의 저자가 대부분 우익계통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이 '소중화사상'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하위에 두려는 일본우월의식이 의도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 우익계통의 교과서가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그다지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주로 고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역사교과서에 '동아시아의 무역상인'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지배한 근대사 부분의 일본사 교과서에는 한국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근대사 부분이 일본인들의 한국인 역사관 형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2010) 「8세기 중후반 일본의 內情과 對新羅關係의 추이 - 752년 金泰廉 使節團의 來日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 『일본역사연구』31, 일본역사연구회, pp.53-84.
- 박남수(2009) 「752년 김태림의 대일교역과 '買新羅物解'의 향약」 『한국고대사연구』 55, 한국고대사연구회, pp.341-391.
- 윤선태(1997)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쓰케[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pp.25-30.
- 이병로·김용일(2006) 「752년 신라사 김태림의 방일 목적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34, 일본어문학회, pp.525-544.
- 李永擇(1979) 「장보고와 해상세력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대학논문집』14, 한국해양대학, pp.70-79.
- 해상왕장보고연구회(2001) 『7-10세기 한중일교역연구문헌목록·자료집』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pp.21-136.
- 青木美智男 他12人(2003) 『祥解日本史B』 三省堂, pp.48-49, p.70.
- 荒野泰典·石井政敏·村井章介編(1992) 『アジアの中の日本史』 시리즈 6권, 東京大学出版会.(각 권의 제목은 I 『アジアと日本』, II 『外交と戦争』, III 『海上の道』, IV 『地域と民族』, V 『自意識と相互關係』, VI 『文化と技術』이다.)
- 池田温(2002) 「天寶後期の唐・羅・日關係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文化と交流』 吉川弘文館, pp.73-93.
- 石井進 他12人(2006) 『高校日本史』 山川出版社, pp.37-38, p.69.
- 石井政敏(1987) 「八・九世紀の日羅關係」 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国家と对外關係』 吉川弘文館, pp.275-272.
- 石母田正(1983) 『日本古代国家論』第1部, 岩波書店, pp.316-322.

- 今西竜(1927)「慈覚大師入唐求法巡礼行記を読みて」 후에 今西竜(1980)『新羅史研究』東京：国書刊行会에 수록, pp.291-368.
- 加藤友康 他9人(2012)『日本史B』清水書院, p.50, p.62.
- 浦生京子(1979)「新羅末期張保高の擡頭と反乱」『朝鮮史研究会論文集』16, 朝鮮史研究会, pp.49-55.
-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会 [編]『教科書レポート』東京：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會, 2011.8, p.33.
- 笹山晴生 他13人(2013)『詳説日本史B』山川出版社, pp.71-72, p.92.
- 藤岡信勝 他7人(2001)『日本人の歴史教科書』自由社, p.67.
- 田中史生(2012)『国際交易と古代日本』吉川弘文館, pp.27-43.
- 田村円澄(1999)『古代日本の国家と仏教』吉川弘文館, pp.417-460.
- 高橋進 他32人(2001)『新しい社会歴史』東京書籍, p.44.
- 東野治之(1977)『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塙書房, pp.348-356.
- 内藤雋輔(1928)「新羅人の海上活動について」『大谷学報』9, 大谷史学会(후에 内藤雋輔(1980)『朝鮮史研究』大学社에 수록) pp.361-396.
- 藤田明郎(1992)「日本中世史における近年の'東アジア海域'研究について」『朝鮮史研究会会報』106, 朝鮮史研究会, pp.21-30.
- 尾藤正英 他7人(2012)『新選日本史B』東京書籍, p.52, p.61.
- 浜田耕策(1983)「中代・下代の内政と対日本外交 - 外交形式と交易をめぐって -」『学習院史学』21, 学習院史学会, pp.276-294.
- 宮地正人 他10人(2012)『日本史B』桐原書店, pp.82-83, pp.102-103.
- 宮原武夫 他15人(2012)『日本史B』実教出版社, p.45, p.56.
- 山内晋次(2003)『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pp.109-126.
- 渡部昇一・小堀桂一郎・国武忠彦 他20人(2014)『最新日本史』明成社, p.59, p.72.
- 李成市(1997)『東アジアの王権と交易』青木社, pp.107-130.

성명(한 글) : 이 병 로

(한 자) : 李 炳 魯

(영 문) : Lee, Byung-Ro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n 'East Asia trader' of Textbook of
Japanese History

소 속 :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E-mail : brl688@kmu.ac.kr

투 고 일 : 2014년 3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9일